



# 재도약 날개 편 이글스의 미래

LEE TAE YANG

# 이태양





# 태양에너지 회복 완료

최근 3년, 이태양 패스트볼 기록

시즌	평균 구속	구종 가치	헛스윙%
2016	139.1 km	-6.4	8.8%
2017	139.8 km	-13.6	9.1%
2018	143.0 km	11.3	19.0%

리그4위

2018시즌 이태양의 패스트볼 평균 구속은 143.0km로 리그 평균 이상을 기록. 헛스윙%도 전년 대비 약 10.0% 증가, 구종 가치도 리그 4위로 압도적이었다.



# 불펜에 안착한 태양

2018시즌 리그 구원 이닝 & ER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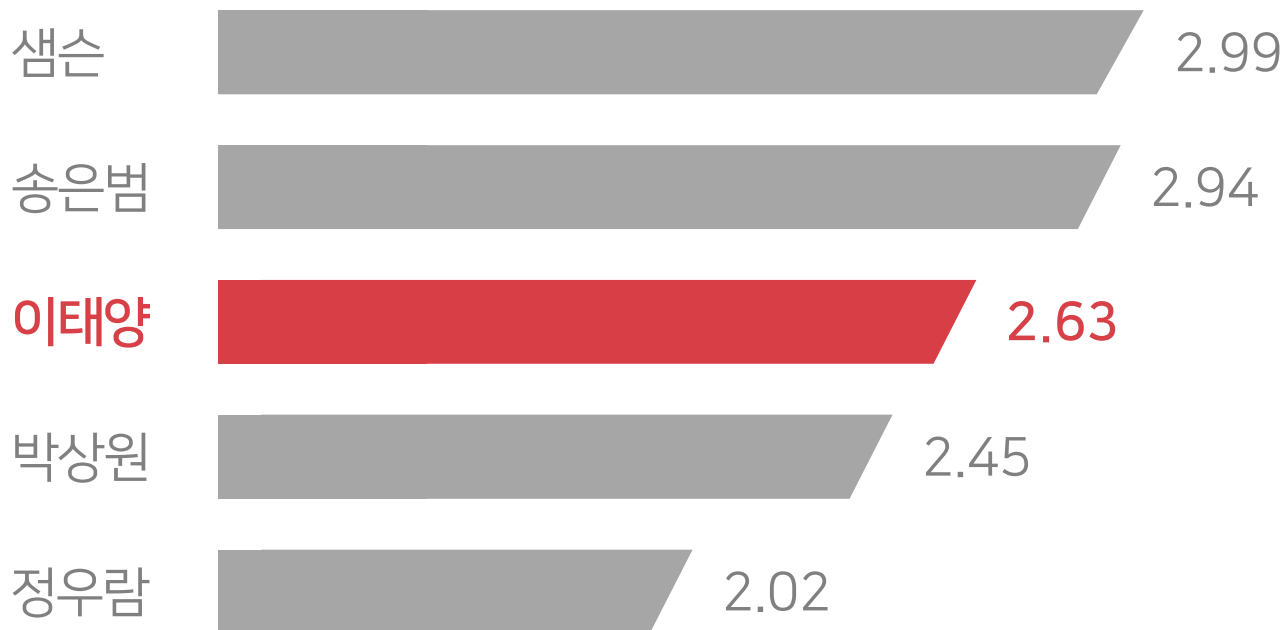
순위	선수	소화 이닝	평균자책점
1	최충연	85.0	3.60
2	김운동	82.2	3.70
3	이태양	79.1	2.84
3	송은범	79.1	2.50
5	김강률	76.0	4.62

구원 이닝 리그 3위, ERA 리그 4위



# 태양을 대체할 수 없다

2018시즌 팀 내 투수 WAR 순위



구원 투수 중 2위, 개인 커리어 하이 WAR 달성!



# 또래 선수들 중 가장 빛나는

2018시즌 25~30세 구원 투수 지표 & 순위

이닝	2위	K/BB	2위
ERA	1위	WHIP	1위
피안타율	1위	WAR	1위
피OPS	1위	WPA	4위

비슷한 나이대의 김윤동과 심창민을 뛰어넘는 최고의 활약



# 자세히 보면 눈부신 가치

2018시즌 김윤동·심창민과 성적 비교

구분	이닝	ERA	K/BB	WAR	연봉
이태양	79.1	2.84	3.70	2.63	7,300
김윤동	82.2	3.70	1.46	2.39	15,000
심창민	66.1	4.07	3.09	1.87	23,000

2017시즌 2.03의 WAR을 기록한 김윤동 연봉 1억 300만 원 상승



# 이태양의 헌신

2018시즌 KBO 리그 혹사지수 TOP 5 (PS 포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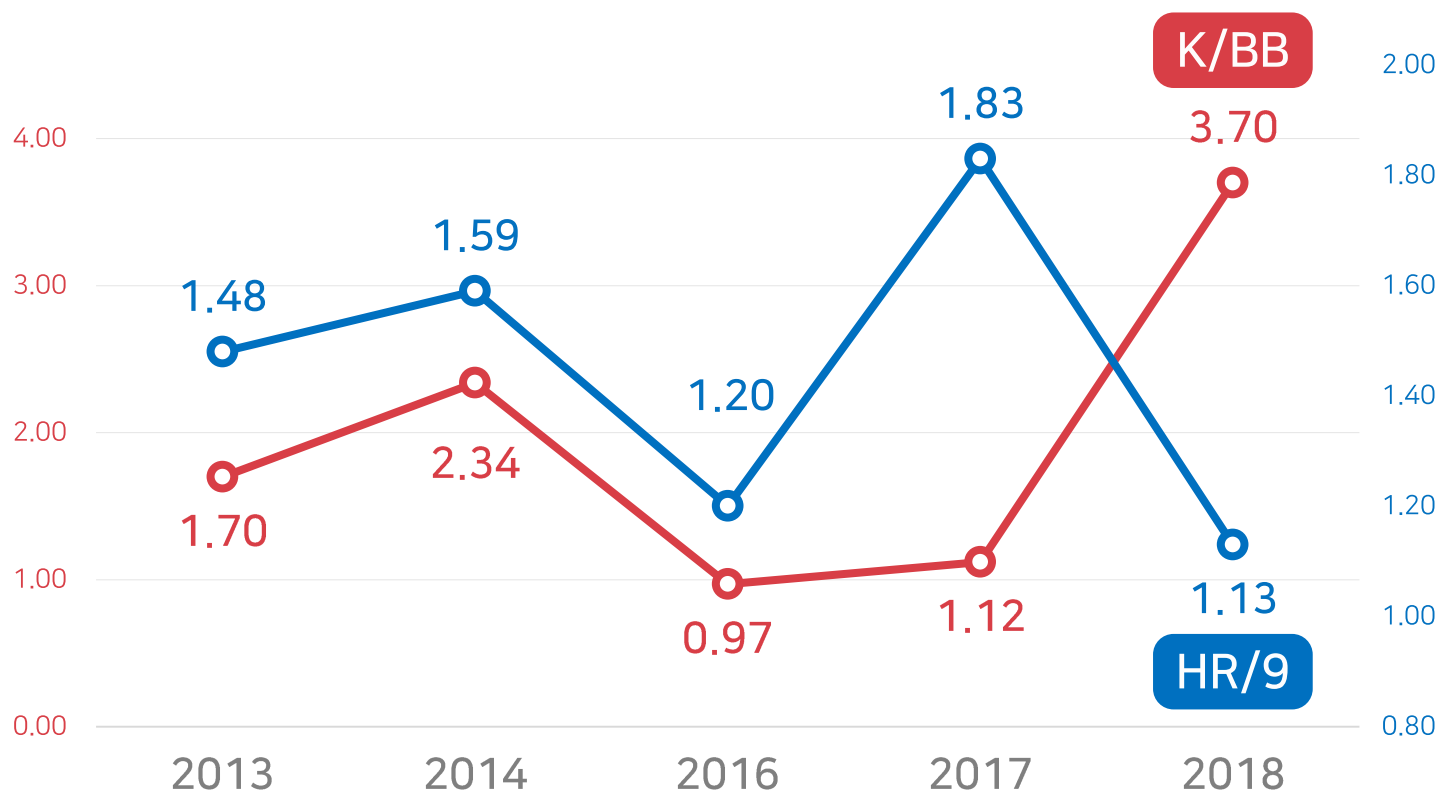
선수	팀	혹사지수
김운동	KIA	3,709
브리검	넥센	3,507
최충연	삼성	3,506
김태훈	SK	3,460
이태양	한화	3,171

이태양은 구원 투수 중 3번째로 많은 이닝을 소화했을 뿐만 아니라, 포스트시즌 합계 혹사지수 5위를 기록하는 등 가을 야구를 위해 팀에 헌신했다.



# 장타 '억제', 제구 '안정'

이태양 최근 5시즌 HR/9, K/BB 비교







# 이태양의 걱정 연봉 (1)

지난 3시즌, 주요 구원 투수 WAR 및 연봉 상승

선수	인상 전	인상 후	WAR	상승액
조상우	6,800 (2015)	17,000 (2016)	3.36	+10,200
원종현	8,000 (2016)	14,000 (2017)	2.31	+6,000
김강률	6,200 (2017)	15,000 (2018)	2.27	+8,800
김윤동	4,700 (2017)	15,000 (2018)	2.39	+10,300

(단위:만 원)

\* 구원 WAR 2.00이상 선수, 인상 전 연봉 1억 원 이하, 팀 PS 진출 기준



## 이태양의 걱정 연봉 (2)

지난 3시즌 기준으로 산정한 이태양 2019시즌 연봉

인상 구분	2018시즌	인상 후	WAR	상승액
최소	7,300	13,300	2.63	+6,000
평균	7,300	16,125	2.63	+8,825
최대	7,300	17,800	2.63	+10,300

(단위:만원)

팀을 11년 만의 가을 야구로 이끈 점을 생각한다면  
이전 사례와 비교했을 때, 평균 이상의 연봉 상승이 기대된다.



## 선발 & 구원 모두 경험한 이태양, 2019시즌이 더 기대되는 이유

이기는 경기에 나가다 보니 불펜도 참 매력이 있다고 느껴진다.  
한 가지만 고집한다기보다 불펜 투수를 하면서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.  
선발에서는 얻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야구를 배움에 있어 도움이 된다.

(2018년 8월 14일 스포츠조선)